

시설원예 월 전기요금 2600만원 → 600만원

地熱 냉·난방 연료비 확 줄어든다

다음달까지 도내 21곳 설치…초기 투자비용 대책 필요

고유가로 시설원예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열(지하)을 이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이 화석에너지에 대체하는 녹색기술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지하 150~200m 깊이에서 15~16°C 정도의 온수를 끌어올린 후 유유(油類) 대신 전기를 활용하는 히트(Heat)펌프로 45°C로 가열해 시설하우스 파이프를 통해 난방하는 방식이다.

여름철 고온기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 품질향상과 수량증가 등 생산성

을 끌어올릴 수 있다.

14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1개소 22.2ha를 대상으로 추진, 현재 강진 3, 장성 3, 화순 2 개소 등 12개소가 완공됐고 나머지 9 개소는 다음달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지열시스템은 유류사용 때보다 난방비를 70~80% 절감함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반영구적인 수명, 계절별 적정 냉·난방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40% 지원되고 자부담이 20%이지만 ha 당 설치비가 10억원을 웃돈다. 고온성 작물인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장성군 황룡면 참푸른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시설하우스 1.48㏊(4천평)에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9억4천900여만원이 투입됐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벙커유를 사용한 지난해와 지열시스템을 설치한 을 2월 한 달간 이곳의 난방비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에는 2천600만원이 들었으나, 올해는 전기료만 600만 원이 들어 78%의 절감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업인들이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면 2~3년 이내에 자부담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업무를 뒷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지열시스템이 전남지역 시설원예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15일 장성군 황룡면 참푸른영농조합법인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전국 현장평가회를 갖는다.

/송기동기자 song@



보성군 회천면 농작물에서 차 애호가들이 첫풀차를 채취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농작물 주산지인 보성군은 보통 4월 20일 곡우(穀雨) 무렵에 햇녹차를 수확했으나 지난 2008년부터는 보름 정도 앞당겨 청명(清明)을 전후해 수확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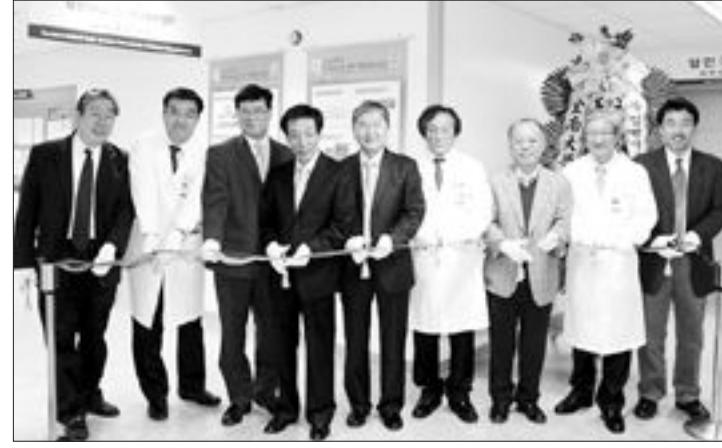
화순은 암 면역치료 연구 특화단지

특성화 사업단 개소식

난치성 암 연구 박차

화순이 국내 암 면역치료 연구 특화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전남대 의과대학은 14일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에서 박창수 의과대학장, 송은규 화순 전남대병원장, 임근기 회순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암 면역치료 연구 특성화 사업단' 개소식을 가졌다. <시진기>



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우리나라 사망률의 주요인을 차지하는 난치성 암을 극복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대는 화순군과 공동으로 암

면역치료 전문 바이오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핵심 연구 사업을 활발히 전개, 화순에 '암 연구 클러스터'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충주취재본부=정은수기자 unsu@

여수박람회 22일 대국민 설명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오는 22일 여수시민회관에서 대국민 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직위는 박람회 개막 2년을 앞두고 개최지 일원 주민 등 국민들에게 박람회 준비상황 등을 직접 설명해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한편 '차별화된 명품박람회' 인식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강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설명회는 엑스포 디지털갤러리 영상 공모 최우수작 발표 및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조직위와 참석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현장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근 여수박람회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인 감사결과 발표로 여수시민 등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시관 건립 및 교통·숙박 문제 등 제반 준비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린이 등을 위한 배꽃가루, 석

/충주취재본부=박상태기자 mihang@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작합)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인근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보1 억5천만 원 390만원
(관리비 포함)

* 빌딩(임대용, 투자용)

-토지 244평 간평 393평
(병원,사무실작합)

-매가 19억

-보증금 1억6천만 원 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신
시면 연락주십시오.

금매물 즉시 증개

대인동심일부동산

☎ (FAX) 023-1772 월 011-602-2532

(광주동행 신분증필, 대인동 소방서인증)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 확인 된 곳.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 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심

TEL : 010-3616-8698

위치: 법원 입찰장 건너편

지 역 소재지 대지/건물㎡ 금액가 희제가

지 역 소재지 대지/건물㎡ 금액가 희제가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 062-364-8700
H.P 010-4608-3700

‘군민의 날’ 행사도

4일간에 걸쳐 열리는 낙약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기가수 초청 공연, 청소년 춤틀단 공연, 길거리 씨름대회, 구례 산수농악공연, 고로쇠 야수마시기 대회, 지리산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14일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따르면 '둘레보고'의 디자인(사진)은 지리산관광권의 핵심인 산과 강을 중심으로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조합은 지리산관광브랜드를 앞으로

개발하는 관광상품과 종자가 숙박시설,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지리

산권 통합축제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은 종자가 숙박시설에 지리산 둘레보고 인증제도를 시행해 지리산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브랜드는 기존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공동 브랜드와는 달리 시·군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광의 마케팅도 기대된다.

조합은 지리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이 지난 2008년에 설립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주말엔 나주 ‘배꽃축제’

금천면 배 시험장서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에서 배꽃 축제가 열린다.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최장전 박사는 '축제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

인에게 불거리, 먹거리 등 관광

자원, 문화마케팅, 배 소비 확대 등

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이 찾아 주기

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린이 등을 위한 배꽃가루, 석

/충주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20일엔 ‘지리산 남약제’

‘지리산 둘레보고’ 선정

과 함께 ‘지리산을 방문하고 둘레 시·군도 보고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4일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따르면 ‘둘레보고’의 디자인(사진)은

지리산관광권의 핵심인 산과 강을

중심으로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조합은 지리산관광브랜드를 앞으로

개발하는 관광상품과 종자가 숙박시설,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지리

산권 통합축제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은 종자가 숙박시설에 지리산 둘레보고 인증제도를 시행해 지리산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브랜드는 기존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공동 브랜드와는 달리 시·군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광의 마케팅도 기대된다.

조합은 지리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지리산 주변 7개 시·군이 지난 2008년에 설립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주말엔 나주 ‘배꽃축제’’

‘‘군민의 날’ 행사도

구례 ‘지리산남약제’와 군민의 날 행사가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우우성)와 구례군 생활체육회(회장 한상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구례향재 출동류 공연 등 5개 부문 36개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충주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우우성)와 구례군 생활체육회(회장 한상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구례향재 출동류 공연 등 5개 부문 36개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